

기고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울예술단의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극장1에서 막을 올렸다. 5월30일 금요일 저녁과 31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공연은 단순한 무대 예술을 넘어 서울예술단의 광주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출발이었다. 나는 그 첫 번째 공연을 관람하며 깊은 감동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새로운 출발, 광주에서의 첫 무대

서울예술단은 34명 단원들이 무대에 올라 보여준 이번 공연에서 국립예술단체다운 높은 기량과 무대 집중력을 선보였다. 주인공과 조연의 경계를 허무는 수준 높은 연기와 호흡, 빠르고도 치밀한 전개 속에서 단원들 모두가 작품의 중심을 이뤘다. 이들은 이제 광주로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 광주시민 모두는 서울예술단을 따뜻하게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의 눈물

‘천 개의 파랑’은 단지 경마와 로봇 이야기가 아니다. 이 작품은 ‘삶의 속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매우 철학적인 서사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 가지 큰 리듬이 있다.

첫째는 ‘천천히 가는 것’. 세 살의 경주마 ‘투데이’는 너무 빠르게 달린 대가로 관절이

천천히 가야 비로소 보이는 삶의 진실

파열되고 안락사 판정을 받아 죽음 직전에 놓여있다. 그의 기수였던 C-27, ‘콜리’ 또한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되는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투데이’의 고통에 공감한 죄로 스스로 낙마하고 하체를 잃는다.

둘째는 ‘멈춤’이다. 콜리와 투데이가 멈췄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도 멈춰 있었다. 가장 뼈아픈 정지는 ‘연제’의 가족에게 있었다. 아버지는 소방관으로 순직했고, 그 순간 어머니의 시간도 멈췄다. 어린 두 딸은 그 멈춘 시간 속에서 자랐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슬픔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침묵했고, 아이들도 어린 나이에 그 슬픔을 짐작하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자라났다. 필자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된 아버지, 그날부터 시간이 멈춰버린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조하며 간병했던 6남매... 지금도 눈물이 맺힌다. 1980년 5월18일 이후 광주시민의 시간도 멈춰 서 있다. 당시 고3학생이었던 필자 역시도 일정한 부분에서는 멈춰 서 있다. 이제는 다시 걷자. 제발 이제는 천천히 다시 걸어보자.

셋째는 ‘다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천천히. 콜리는 안락사 직전, 연제에 의해 수명을 2주간 연장받는다. 그 안에 마지막 경주를 준비하며, 가족과 기계, 말의 생명이 교차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어머니는 드디어 울음을 터뜨린다. 삶을 멈췄던 그녀가, 멈췄던 감정을 해방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장면은 단순한 눈물의 연기가 아니라, 고여 있던 시간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는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다. 가슴 먹먹한 순간이었다.

◇예술의 중심, 광주로의 이전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다. 이는 국가 예술 생태계의 재편이며,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문화 분권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광주는 전통예술의 뿌리가 깊은 도시로, 서울예술단과의 협업을 통해 전통의 현대화, 지역의 콘텐츠화, 예술의 공동체화를 실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이전’이 아니라, 여기 광주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창작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무대를 기반으로, 광주에서 창작된 작품이 전국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점과 예술가의 창작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역 예술계와의 조화로운 상생 역시 중요한 과제다.

◇천천히, 그러나 함께 가는 길

‘천 개의 파랑’은 로봇, 말, 인간, 가족이 엮인 서사를 통해 이 시대의 속도에 대해 묻는다. 경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감정은 오류가 아니라 진화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공연은 “너무 빠르게 달리면 다 놓친다. 잠깐 멈추는 것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무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면서도 결코 삶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천천히’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그렇게 해야만, 주변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슬픔을 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예술단이 광주에 동지를 트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광주와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예술의 시대를 여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이미 감동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는 광주시민들이 마음을 열고 대한민국 예술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갈 차례다. 광주로 오는 서울예술단과 광주시민의 합창이 곧 시작될 것이다.

자치칼럼



이계양
품자주자 시민들 공동대표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장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는 지난 3년, 특히 지난 6개월은 특별히 불행했다.

전임 대통령의 등장 후 3년, 그리고 12·3 비상계엄 후 꼬박 6개월 만에 내란의 일단락이 대통령 선거로 끝이 났다. 끝없는 무질서와 불공정과 물상식, 무한정 확장되는 혐오와 차별, 극단적 대립과 갈등에 뒤따르는 불행은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 뒤흔었다.

얼마나 가슴 졸이고 애대왔던가. 국회의사당, 광화문, 남태령, 용산, 헌법재판소를 오가며 응원봉을 들고, 키세스 차림을 한 채 소리 높여 외치고 노래하면서 참담하고 비극적인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였다. 당장 힘들고 불행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도전에 몸을 사리지 않았다. 비극과 불행을 오늘로 끝내고 웃음과 행복의 세상을 열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이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웰빙 연구센터와 궤렬,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를 펴내고 국가별 행복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은 58위(6.038점)로 작년(52위)보다 6계단 떨어졌다. 미국은 24위(6.728점)로 이 조사가 시작된 2012년(11위) 이래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독자투고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도로변 가로수나 잡목들이 무성하게 자라 교통표지판까지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된다.

교통표지판은 운전자들이 그 도로의 환경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통사고 등으

가로수 ‘교통표지판’ 가림으로 사고 위험

로 이어질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에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는데 그곳 또한 도로변 가로수가 교통표지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잡목이 교통표지판을 온통

덮고 있어 찾아볼 수도 없다. 정부에서 비싼 세금을 들여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교통표지판이다. 관계기관에서는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으면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채택·국비 확보 선제 대응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관련, 전국 지자체들이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다. 6개월 전 내란 사태로 벼랑 끝 민생 회복이 시급한 만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선제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이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TF를 구성해 시군과 함께 공약 구체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국정과제와 최소 1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주요 공약은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농어민 기본수당, 신재생에너지 허브,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다. TF는 신성장동력, 핵심 SOC 등 5개 정책 분과별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시청사와 전일빌딩245외벽에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야 날자’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인공지능(AI)과 미래차, 국가 주도 민·군공항 통합 이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현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특히 현수막에는 통합과 화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파랑색과 붉은색을 함께 사용해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는데 최선을 다하며 행

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광주와 전남은 21대 대선에서 80% 중반의 높은 투표율 및 득표율로 이 대통령 당선에 절대적 역할을 했다. 내란 종식과 경제 안정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드러냈다. 새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 물론 다른 지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호남지역은 윤석열 정권 3년을 허송세월한 것이나 같다. 실제로 역점 사업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 제시한 공약들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제1호 행정명령으로 직속 비상경제 TF 구성을 지시했으며, 곧바로 가동에 들어갔다.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 국정과제 채택과 내년 국고확보 활동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시민들의 삶에 별이 들 수 있도록 추경에도 기대를 걸어야 한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을 시작했다. 잘 준비해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위기 극복 및 성장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5·18 왜곡 온라인 게임 해외 유통 차단 못한다니

해외 플랫폼에서 제작된 온라인 게임 ‘광주 런닝맨’은 전두환 사진을 걸고 계엄군과 시민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가해자 중심의 왜곡된 시선으로 설계됐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정당하다는 메시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흉악·폭력단이며, 망설이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라 등의 내용으로 소개돼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고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조롱 등 2차 가해다.

5·18기념재단이 지난 3월 홈페이지 제보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하곤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임사의 선택적 대응과 국내법 적용 등 한계 때문이었다. 이에 6월 중 외교부 등에 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1대 대선 선거운동기간인 45주년 기념식에서 후보 자격으로 참석해 약속했었다.

5·18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판치는 현실을 목과할 수 없다. 당사자국만 접속을 막고 주변국엔 유통하는 그릇된 행태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구 여론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이르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과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의 왜곡·왜곡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5·18의 희생과 용기가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 정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신군부 전두환을 미화하고,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국적으로 무차별 소비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 관련 법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침물에는

어머니는 전사다

이선애



전화(戰火)가 휩쓸고 간 우물가 어머니의 매운 손 끝에 당해 나뭇구수 곁의 침묵으로 그깟까지 동여매는 잔해를 본다
널브러져 말라붙은 피 묻은 살점 텅 빈 소쿠리에 담긴 고무장갑 축 늘어진 패잔병들 함아리 속에 누워 고춧가루 붉은 악으로 상처를 싸매고 있다
구슬의 화살촉에 맞은 내 가슴 속 상처도 보았는지

어머니는 물 묻은 거즈로 수 겹의 침묵으로 그깟까지 동여매준다
승리마저 잔인한 우물가 전쟁 끝내 깊은 내상을 입고 쓰러진 어머니 눈 오는 저녁의 잠꼬대를 듣는다
폭설이 내리기 전 한 문장 한 문장 전쟁을 마무리하라는 전언.
(시집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상상인, 2020)

【시의 눈】

평화가 숨 쉬는 산하. 넌지시 우월의 안경으로 내다보면 초연이 자욱하다. 갈라진 국토의 경계에서 깃발 선 눈으로 내려보며 가슴팍에 짙은 상흔을 남겼던 그 날의 성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동쪽 상반의 비극적 무대에서 스러져간 한 맺힌 농자가 크로즈업 돼 그 사무침과 애절함이 가슴을 긋는다. ‘초연이 살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 댕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알려진 가곡이다. 이 가사처럼 전쟁의 결과는 깊숙히 상흔을 남긴다. 그래서일까. 우월에 읽는 시 역시 행간에서 화염이 피어오른다. ‘어머니는 전사다’ 제목 자체가 도발적이다. 아니 반전의식을 깔면서 여차하면 한판 물러서지 않고 붙겠다는 항전의식과 전의를 내비친다. 싸움터는 우물가. 우물가는 마을 여민네들이 나와 물을 길고 빨래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나누는 공론의 장. 좋고 곳은 이야기. 험담과 무성함 소문 퍼나르기가 허락된 공공장소. 불꽃 상처를 주는 말이 내뿜어짐으로써 무심코 던진 비수로 인해 전쟁이 벌어진다. 나뭇구수 잔해, 패잔병, 붉은 상처, 깊은 내상의 진술이 치열했던 전쟁을 암시한다. 폭설이 내리기 전 전쟁을 마무리하라는 메시지. 화해의 기대치마저 긍정적 치유와 위로다. 〈윤상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부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 (일간)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